

Contents

| | |
|---------------|---|
| 권두언 | 1 |
| 논문발표회/학술대회 소식 | 3 |
| 학회지 발간 | 3 |
| 신간 소개 | 4 |
| 공지사항 | 7 |
| 회비납부 | 7 |

발행일 2023. 2. 24.

발행처 한국러시아문학회

발행인 심성보

권두언

누구를 위한 여행인가?

중세의 순례기에서 부각되는 바는 단연 신앙심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의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중세의 순례기는 갈 길이 정해져 있으며, 그 목적은 자신이(더 정확히는 우리가)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것을 재확인/재확인하는 여행이었다. 따라서 순례기의 레토릭은 대체로 정해져 있었다. 개인의 여행기이되 문체에서부터 구성까지 개별 작품 간의 개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가령 이들 작품은 “저는 신의 도움으로 짐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과 같은 말로 마무리되었다.

따라서 ‘더 멀리 갈수록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된다’라는 명제는 중세의 세계관과 무관한, 새로운 시기의 여행모토였다. 르네상스 이후에서야 이 명제는 지식과 교육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신의 영혼이 아닌 인간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천국의 지도가 아니라 지상의 지도에 대한 관심이 자리 잡았다. 이에 이념형에 가까웠던 중세의 T-O형 세계 지도는 실측에 기반한 세계 지도로 바뀌었고, 전문 ‘탐험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계몽주의 세계관에서 여행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여행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축적 그리고 이성의 단련은 ‘역사를 전진’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가령 어느 역사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엘리트 교육의 최종 단계’는 다름 아닌 그랜드 투어였고 이는 지식인과 귀족 자제들의 교육 필수 코스가 되었다.

이런 사태는 18세기 러시아에서도 벌어졌다. 그러나 러시아는 영국의 전형적인 그랜드 투어와는 경우가 달랐다. 영국에서는 귀족들이 자국의 교육 환경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여행에 나섰다. 러시아에서는 황제, 즉 국가가 직접 여행을 장려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랜드 투어’의 가장 열성적 지지자이자 이로 인해 그 자신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인물이 다름 아닌 러시아 근대화의 아버지인 표트르 1세였기 때문이다.



총무이사
서광진 (경북대)

그는 황태자 시절부터 그랜드 투어라고 불리울 만한 여행을 몇 차례 감행하였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을 수차례, 수년 동안 자신의 수행원(교사)들과 여행하면서 직접 보고 배웠다. 이후 황제가 된 표트르는 유망한 젊은이들을 국비로 유럽으로 유학을 보냈다.

유리 슬레즈키의 표현에 따르면 “적어도 17세기까지의 러시아인은 여행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도망가거나, 이주하거나, 편력했을 수는 있었지만,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여행이든, 세속적이거나 불경스러운 것들을 찾는 여행은 하지 않았다. 순례나 출장이나 이민이 아닌 여행은 이런 배경으로 탄생하기 시작했다. 이후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관광산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과 관광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여행을 통해 우리의 삶은 매일 새로워지고 다채로워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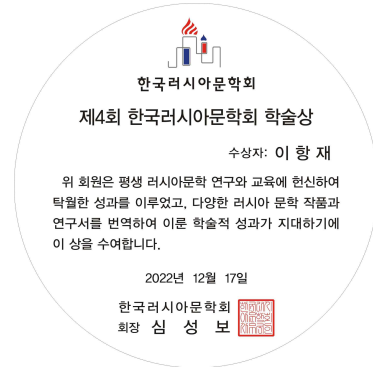
한편으로 우리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 혹은 재충전을 위해 여행을 한다. 그러나 근대적 여행의 시발점에는 여행과 특정 목적 - 예를 들어 교육과 식견의 확장 등 - 이 전제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행이 순전히 ‘개인적’일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비슷하게 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는 역설을 발견할 수 있다. 남들이 하는 여행 코스에 사람만 바뀐 것이다. 가령 오늘날 가장 흔한 문학양식이 여행기라는 점을 상기해 보자. 직업 작가가 아닌 일반인이 각종 SNS에 쓰는 글의 대부분이 여행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가장 쉽고 흥미있게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행의 기록을 남기거나 읽는 것이다. 혼자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친구들이든 이들과 함께 했던 미식 여행이나 관광, 데이트에 대한 온라인 글쓰기가 가장 접근이 쉬운 문학 활동인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여행기(리뷰 등)들이 큰 틀에

서 비슷하다는 점이다. 출발 전 정보 공유 및 수집, 여행지에서 여흥, 면세품 쇼핑, 먹거리, 후기 등. 나아가 느끼는 감정이나 수사가 대동소이하다. 우리는 어느새 개성과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확인하기 위해(혹은 다른 사회로 편입하기 위해) 여행을 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여행을 통해 과거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재확인할 뿐이다. 매우 개인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는 여행을 통해 너무나 똑같은 여행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역설 앞에 놓여있다. 우리는 그저 “세속적 순례자”일 뿐인 것일까? 여행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여 현실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선은 ‘자아 발견의 여행(그러니까 힐링 여행!)’은 중세 순례기의 다른 버전과 다름없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논문발표회/학술대회 소식

▶ 2022년 10월 15일 러시아학 관련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가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에서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팬데믹 시대의 러시아학’이라는 공통 주제 아래 문학, 문화, 어학, 지역학 분과에서 다양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학회는 ‘팬데믹 이후 러시아 문학의 수용과 유통’, ‘도스토옙스키201’, ‘러시아문학에 대한 새로운 시선들’ 등의 분과 주제로 이루어진 문학분과를 진행하였습니다.



▶ 2022년 12월 17일 제91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서관에서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종현 회원이 “사회주의리얼리즘 규범과 메타서: 파스테르나크의 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우리 학회가 진행하는 독회지원사업 참가팀들(슬라브학 연구동향 조사팀, 러시아 상징주의 연구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회를 마친 뒤에는 <2022 한국러시아문학회 학술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항재 전 회장이 탁월한 학술적 성과와 활발한 번역 활동을 인정 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학회지 발간

▶ 8월 25일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78집이 발간되었으며, 문학, 어학 및 문화 분야의 논문 11편이 수록되었습니다. 백용식 회원(충북대)의 「A. 체홉의 희곡 <바나 아저씨> 연구: 사건과 희곡의 구조」, 김나영 회원(경북대)의 「러시아어 요청 화행 연구: 언표 내적 투명성과 공손성의 관점에서」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 11월 25일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79집이 발간되었으며, 문학, 어학 및 문화 분야의 논문 12편이 수록되었습니다. 송정수 회원(중앙대)의 『현대 러시아 문학에 나타

난 ‘부재의 형이상학’: 티무르 키비로프(Т. Кибиров)와 드미트리 프리고프(Д. Пригов)의 창작을 중심으로』, 조규연 회원(중앙대)의 『러시아 현대미술의 의미와 방향: 모스크바 행동주의와 논스펙타클러 아트』, 정경택 회원(경상대)의 『남·북갑카스의 언어상황 비교』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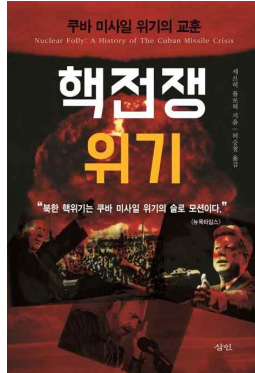
▶ 2023년 2월 25일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 80집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신간 소개

(2022년 6월 30일부터 2023년 2월 24일까지 출간된 책을 인터넷 교보문고 및 출판사 제공 서평과 함께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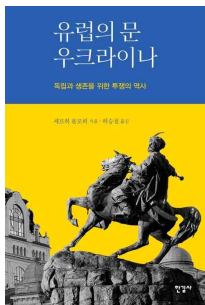
1. 핵전쟁 위기: 쿠바 미사일 위기의 교훈 (세르히 플로히 지음, 허승철 옮김, 삼인, 2022년 6월 30일 출간)

우크라이나 출신의 하버드대학 역사학과 교수이자 하버드 우크라이나연구소장인 세르히 플로히 Serhii Plokyh의 2021년 작 『핵전쟁 위기-쿠바 미사일



위기의 교훈(Nuclear Folly: A History of The Cuban Missile Crisis)은 북한과의 핵 교착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기억을 소환하게 되는 ‘쿠바 미사일 위기’를 다룬 저작으로, 1962년 당시 미국·소련·쿠바의 핵심 정치인인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 니키타 흐루쇼프, 피델 카스트로가 전 세계를 핵전쟁의 위기로 몰아간 결정적인 오해와 착각과 오판의 순간들을 다시 그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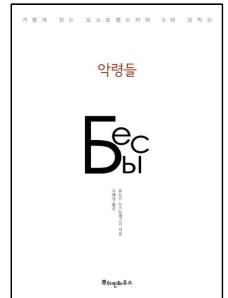
2. 유럽의 문, 우크라이나. 독립과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역사 (세르히 플로히 지음, 허승철 옮김, 한길사, 2022년 6월 30일 출간)



중유럽과 러시아, 중동 사이에 위치한 우크라이나는 이 나라를 동방과 서방의 전략적 관문으로 이용하려는 제국들, 특히 로마 제국과 오스만 제국, 제3제국, 소련에 의해 모양이 형성되었다. 이 책에서 플로히 교수는 키이우 영웅부터 정복자까지 주요 우크라이나 역사 인물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정체성 모색을 연구한다. 이 책은 헤로도토스 시대부터 소련 붕괴와 지금의 우크라이나-러시아 갈등까지 우크라이나의 2000년 역사 중 제1부에서 1,000년, 제2~5부에서 나머지 1,000년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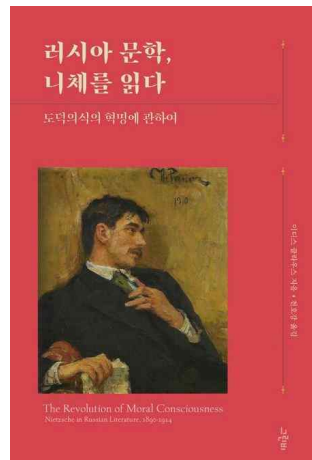
3. 악령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조혜경 옮김, 뿌쉬킨하우스, 2022년 7월 31일 출간)

19세기 러시아 사회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작품 『악령들』이 ‘가볍게 읽는 도스토옙스키의 5대 걸작선 시리즈’로 출간되었다. 이 시리즈는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작가의 5대 장편 소설인 『죄와 벌』, 『백치』, 『악령들』, 『미성년』, 『카라마조프 형제들』을 독자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엄선된 문장으로 이해를 도우며 접근성을 높이는 축약본 시리즈로 기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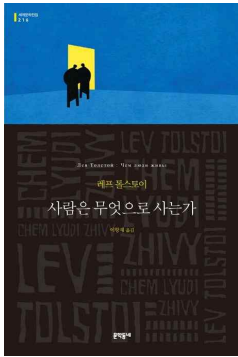


4. 러시아 문학, 니체를 읽다 (이디스 클라우스 지음, 천호강 옮김, 그린비, 2022년 8월 22일 출간)

이 책은 19~20세기 전례 없던 러시아 문학의 부흥기, 도덕의식의 혁명을 그려 낸다. 이전 세대의 전통적인 가치를 대신할 자아발견과 자기실현이라는 목표를 찾았지만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상을 그려 내지 못했던 작가들과 프리드리히 니체와



의 만남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 냈을까. 저자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선 문화적 의미로서의 ‘신화’ 개념을 통해 대중적 작가들, 신비주의적 상징주의자들, 혁명적 낭만주의자들로 당시 작가들의 작품 속 니체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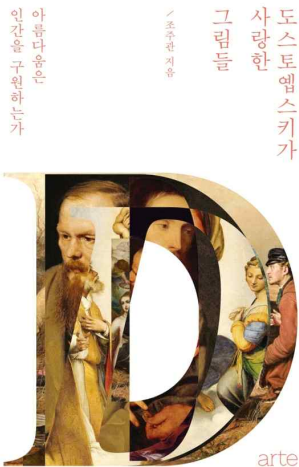


5.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레프 톨스토이 지음, 이향재 옮김, 문학동네, 2022년 9월 5일 출간)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216번으로 출간되었다. 거장의 위대한 작품세계를 총망라한 중단편선으로, 표제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비롯하여 「이반 일리치의 죽음」 「크로이처 소나타」 등 톨스토이 창작 활동의 각 시기를 대표하는 11편의 작품을 엄선했다. 이 소설들은 톨스토이의 삶과 사상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3대 장편(『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부활』)의 산실이라는 점에서 그의 문학세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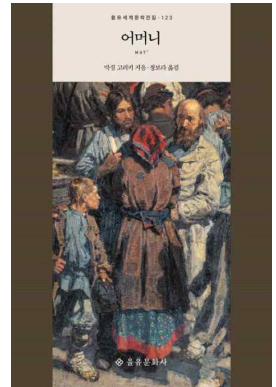
6. 도스토옙스키가 사랑한 그림들 (조주관 지음, 아르테, 2022년 10월 26일 출간)

도스토옙스키가 감명 받은 미술작품은 세 가지 형태로 남아 있다. 첫째는 『작가 일기』와 『도스토옙스키 아내의 회고록』에 담긴 기록, 둘째는 그의 소설에 실제로 언급된 그림들, 셋째는 그의 ‘미술평론’에서 논한 그림들이다. 이 책은 도스토옙스키가 남긴 세 가지 형식의 기록물을 근거로 연구해 그의 미술관(美術觀)을 알아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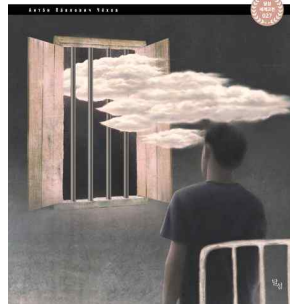


7. 어머니 (막심 고리키 지음, 정보라 옮김, 을유문화사, 2022년 10월 30일 출간)

을유세계문학전집 123번째 작품으로 막심 고리키의 대표작인 『어머니』가 출간되었다. 이 작품은 주인공 ‘어머니’로 대표되는 하층민의 각성과 혁명 운동을 그린 소설로,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의 효시로 여겨진다. 더불어 오늘날에 보아도 놀라울 정도로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지녔고, 등장인물의 성격 및 심리 묘사도 뛰어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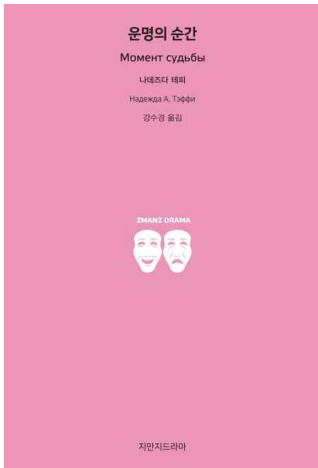


인문 비평잡지 『세움』
체홉의 6호실



8. 체홉의 6호실 (안톤 체홉 지음, 문석우 옮김,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년 11월 30일 출간)

이 책은 모스크바에서 출판된 12권으로 된 체홉 전집에 수록된 소설 세 편(「6호실」, 「농부들」, 「골짜기에서」)을 선정하여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 세 편의 중편은 작가가 사할린 여행을 다녀온 후 발표한 작품들로 모두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사실주의적인 묘사가 뛰어나다는 점에서 한 묶음으로 출판하였다. 세 편 모두 사회적인 관심과 세계관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사회악에 대해 맞서지 않는 인간들의 무반응과 무기력함에 초점을 맞추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운명이 악의 무리들에 의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폭로하면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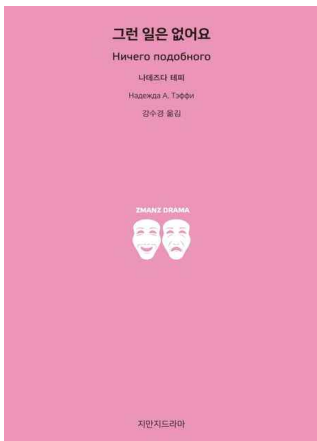
9. 운명의 순간 (나테즈다 테피 지음, 강수경 옮김, 지만지, 2022년 12월 28일 출간)

은세기 러시아에서 ‘유머의 여왕’이라 불린 나테즈다 테피의 대표 희곡을 세계 최초로 단행본으로 출간한다. 혁명 전 러시아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지만

망명 후 자국에서 빠르게 잊혔던 테피의 작품에는 망명, 난민, 디아스포라, 여성이라는 현재적 주제가 특유의 따뜻한 유머 안에 스며 있다.

10. 그런 일은 없어요 (나테즈다 테피 지음, 강수경 옮김, 지만지, 2022년 12월 28일 출간)

20세기 러시아 드라마를 개척한 여성 극작가 중 대중적으로 가장 성공한 ‘테피’의 대표작. 나테즈다 테피는 은세기 러시아 극장에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왕성하게 활동하며 러시아 연극 개혁에 동참했던 작가다. 이름을 딴 향수와 초콜릿이 판매될 정도로 대중에게 사랑받았으며,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2세와 레닌, 임시정부 총리를 지낸 케렌스키가 그녀의 열성 팬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문학적 성과와 대중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소련을 탈출해 파리로 망명한 이력 때문에 이후 러시아에서 빠르게 잊혔다. 1990년대 후반에야 러시아 내에서 테피와 같은 여성/망명 작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활발히 조명되고 있다.



11. 러시아 문학의 넓이와 깊이 (조주관 지음, 세창출판사, 2023년 출간)

이 책은 작가에 대한 설명보다는 주제 중심의 문학 텍스트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대표적인 러시아 작품들이 어떠한 문학적 정신을 품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러시아 문학 작품에 대한 사색과 해석의 공간을 넓히고 싶었던 필자는 기존의 문학사에서 등한시되었던 극작가들의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대표적인 희곡 작품으로는 폰비진의 『여단장』과 『미성년』, 푸시킨의 『보리스 고두노프』와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그리보예도프의 『지의 슬픔』, 고골의 『검찰관』, 오스트롭스키의 『뇌우』, 톨스토이의 『어둠의 힘』, 채홉의 『벚꽃 동산』, 『갈매기』, 『세 자매』, 『바냐 아저씨』, 고리키의 『밀바닥』 등이 있다.

공지사항

▶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80집, 제81집 투고 안내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80집은 2023년 2월 25일 발간 예정입니다. 제81집은 2023년 4월 15일에 투고가 마감되어 5월 25일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 논문 투고규정

- 가.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온라인 사이트 잼스(<https://russian.jams.or.kr>)를 통해 논문을 제출한다.
- 나. 투고 논문은 한국어, 러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한다.
- 다. 모든 논문은 ‘아래아한글 2004’ 이상으로 작성하되, 지정된 편집용지 기준 20장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 라. 모든 원고에는 편집용지 기준 1장 내외의 외국어(본문과 다른 언어) 초록과 8개 단어 내외의 한글 및 영문 주제어(Keyword)를 첨부한다.
- 마. 원고 작성의 세부사항은 ‘논문작성 요령’을 따른다.
- 바.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반드시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사. 공동집필 논문의 경우 제 1저자(연결 저자 포함)와 공동 저자를 구분한다.
- 아. 특별 청탁 논문을 제외한 모든 논문의 필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자는 논문 투

고 시 심사료(6만원)를 지불하며, 논문이 채택된 경우는 게재료를 납부한다(전임: 20만원, 전임 연구비 수혜논문: 30만원, 비전임 게재료 없음, 비전임 연구비 수혜논문: 20만원). 심사료 및 게재료는 차후 조정될 수 있다.

- 자. 타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거나 이미 게재가 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차. 본인 및 타인의 연구물을 표절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카.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의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동시에 저작권에 대해 학회의 이용을 허락한다.

* 계좌번호: 카카오뱅크 3333-23-8457055 예금주: 류순옥

▶ <평생 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

존경하는 학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의 지속가능성을 공고히 하고 학회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에 제시된 회비납부 현황을 참조해주시십시오.

회비납부

▶ 회비 납부 현황

2023년 2월 10일 현재 학회비 납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내주신 학회비는 엄격하

고 꼼꼼하게 관리되어 학회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혹시 회비 납부를 하였으나 아래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karusist@naver.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 2009~2022년 특별회비를 출연해 주신 회원님

| | | |
|----------------------|------------|--------|
| 이항재 전 회장 | 2000,000원 | (2022) |
| 김태욱 회원 | 200,000원 | (2022) |
| 심성보 회장 | 2,000,000원 | (2022) |
| 정명자 전 회장 | 5,000,000원 | (2021) |
| 박재만 회원 | 500,000원 | (2021) |
| 최 선 전 회장 | 1,000,000원 | (2021) |
| 서상범 전 회장 | 1,000,000원 | (2020) |
| 정명자 전 회장 | 1,000,000원 | (2019) |
| 김규중 회원 | 2,000,000원 | (2019) |
| 변현태 전 회장 | 1,000,000원 | (2019) |
| 최 선 전 회장 | 1,000,000원 | (2019) |
| 문석우 전 회장 | 1,000,000원 | (2019) |
| 이대우 전 회장 | 1,000,000원 | (2019) |
| 석영중 전 회장 | 1,000,000원 | (2019) |
| 조주관 전 회장 | 2,000,000원 | (2018) |
| 이규환 전 회장 | 2,000,000원 | (2017) |
| 조주관 전 회장 | 2,000,000원 | (2017) |
| 정명자 전 회장 | 1,000,000원 | (2017) |
| 문석우 전 회장 | 1,000,000원 | (2017) |
| 최 선 전 회장 | 3,000,000원 | (2016) |
| 이강은 전 회장 | 2,000,000원 | (2015) |
| 조주관 전 회장 | 2,000,000원 | (2015) |
| 경북대 토대사업팀(연구책임자 김정일) | 500,000원 | (2015) |
| 전명선 전 회장 | 1,000,000원 | (2014) |
| 백용식 전 회장 | 1,000,000원 | (2014) |
| 변현태 전 회장 | 1,000,000원 | (2014) |
| 김정일 전 부회장 | 1,000,000원 | (2014) |
| 조주관 전 회장 | 500,000원 | (2013) |
| 백용식 전 회장 | 1,000,000원 | (2012) |
| 석영중 전 회장 | 1,000,000원 | (2011) |
| 열린책들 | 2,900,000원 | (2010) |
| 최성호 전 회장 | 1,000,000원 | (2009) |

▲ 2017~2022년 평생회비를 한 번 더 내주신 회원님

문석우(50만 원), 백용식(50만 원), 정경택(50만 원), 심성보(50만 원), 윤영순(50만 원), 이명현(30만 원), 이항재(50만 원), 서상범(50만 원), 최진희(30만 원) 김진규(50만 원) 최정현 (50만원) (이상 11인)

* 평생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평생회비 완납(1997년~2023년 2월 10일 현재)

고영랑, 권경준, 김경태, 김규중, 김민아, 김선명, 김선안, 김세일, 김용화, 김정아, 김정일, 김진규, 김진영, 김철균, 김태욱, 김홍중, 김혜란, 김희숙, 문석우, 박선영, 박재만, 박종소, 박현섭, 박현아, 박형규, 박혜경, 박혜옥, 백경희, 백승무, 백용식, 백준현, 변현태, 서광진, 서상범, 석영중, 송인필, 심민자, 심성보, 심지은, 안병용, 안병팔, 안혁, 오원교, 오종우, 유승만, 윤영순, 이강은, 이규환, 이기웅, 이기주, 이남경, 이대우, 이득재, 이명현, 이문영, 이영의, 이장욱, 이재혁, 이준형, 이지연, 이항재, 이현숙, 이형숙, 전명선, 전병국, 전정옥, 전지용, 정명자, 정보라, 정영주, 조규연, 조미경, 조유선, 조주관, 조혜경, 차지원, 천호강, 최진영, 최병근, 최선, 최성호, 최정현, 최종술, 최진석, 최진희, 한예경, 한지형, 허승철, 허효영, 홍대화, 홍순미, 홍지인 (이상 92인)

▲ 평생회비 부분납(2023년 2월 10일 현재)

길윤미, 민경현, 서선정, 윤새라, 이수현(이상 10만 원), 홍택규 (이상 15만 원), 강수경, 안지영(이상 20만 원), 김상현, 김보라 (이상 25만 원), (이상 10인)

▲ 회비 납부(2022년 7월 1일 - 2023년 2월 10일 현재)

이종현, 정세진, 이수현, 정지운, 전성희, 류순옥, 송정수, 임수영, 박미정, 김연경, 김현정

▲ 기관회원 연회비 납부(2023년 2월 10일 현재)

경북대도서관

▶ 2022년도 회비 납부 안내

2022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및 준회원의 입회비는 2만원이며, 정회원의 연

회비 및 평생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과 수료생의 경우 준회원으로 가입하여 학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박사 학위 취득 시까지 연회비 면제). 평생회비는 3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하나은행 864-910211-28107, 예금주: 서광진

- ▲ 전임교원 연회비: 5만원
- ▲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 ▲ 전임교원 평생회비: 50만원
- ▲ 비전임교원 평생회비: 30만원

* 입금하실 때에는 반드시 성함과 입금 내역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연회비, 홍길동평생회비)

한 국 러 시 아 문 학 회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311호
TEL: 053) 950-7160 학회 홈페이지: www.russian.or.kr